

K-IFRS 제1109호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영향 분석

오정민¹⁾

I. 검토 배경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K-IFRS 제1117호 도입과 더불어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하 “IFRS 9”)이 '23년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IFRS 9은 '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보험사²⁾는 IFRS 9을 K-IFRS 제1117호의 시행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적용을 면제받아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회사는 현행 회계기준인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하 “IAS 39”)을 활용하여 순자산과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하여 왔다. IAS 39에서는 회사의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매도가능항목 또는 만기보유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보유항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 또는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채권평가이익을 인식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³⁾

IFRS 9은 금융자산의 계정을 재분류할 때 사업모형의 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므로 현재 채권의 계정 재분류로 자본비율을 관리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또한 新감독지표인 K-ICS에서는 회계기준에서는 원가로 측정되는 부동산, 대출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일반회계상 이익 제고 목적과 감독당국의 규제비용 관리 목적상 자산운용 전략을 상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분석2부 선임조사역

2) 보험사업부채가 총 부채의 90%를 초과하거나 보험사업부채가 총 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3) 단,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3개 회계연도 동안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하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IFRS 9 도입이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파악하고, 자산운용 전략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IFRS 9 주요 내용

기존 회계기준인 IAS 39에서는 금융상품의 손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인식한다. 따라서 손상 발생 이전에는 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나, 손상 발생 시 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러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으로 인해 경기순응성이 확대⁴⁾ 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있어 이해와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IFRS 9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단순화, 이해가능성 증진 및 손상의 적기 인식을 목표로 '14년 7월 제정되고 '18년 시행되었다. IFRS 9은 현행 회계기준의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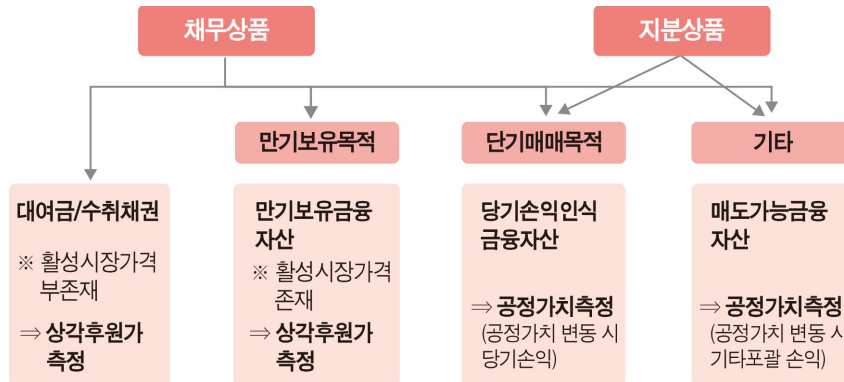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의 분류는 현행 4가지에서 3가지로 변경된다. IAS 39에서는 보유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가지로 분류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각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IFRS 9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하 “AC(Amortised Cost) 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FVPL(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자산”) 3가지로 분류한다. 계정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AC 자산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FVOCI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FVPL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

4) 경기 후퇴 →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급증 → 금융회사 대출 여력 위축 → 경기 후퇴 가속화

〈기존 회계기준(IAS39) 하 분류 및 측정〉



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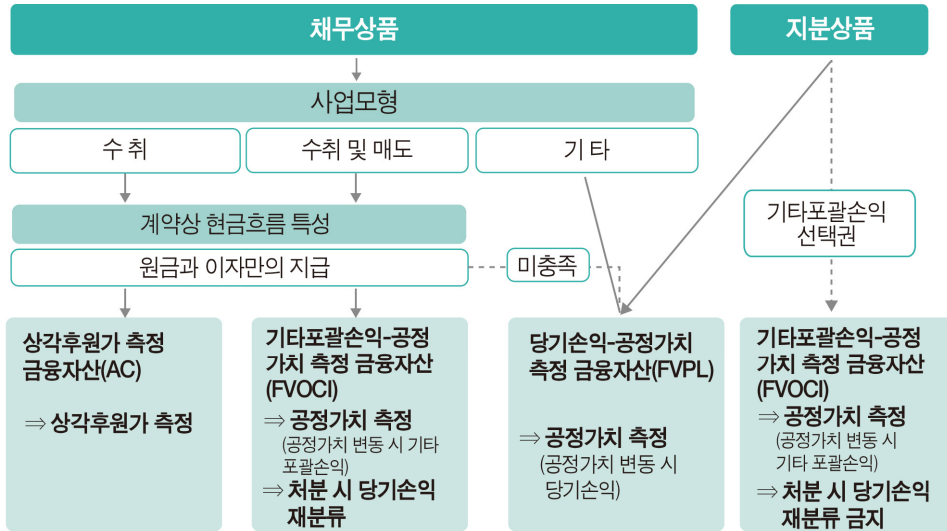
한편 AC자산과 FVOCI 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이하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요건”)되는 채무증권과 대출채권만 분류 가능하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FVPL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회사는 지분상품 등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을 사용하여 FVOCI 자산으로 영구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해당 상품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금지된다.

〈금융자산 분류〉

구 분	정 의
AC 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 채무상품
FVOCI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가 목적인 채무상품
FVPL 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고, 사업모형이 매매 목적인 채무상품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파생상품 등

현행 회계기준인 IAS 39에서 금융자산의 계정재분류는 보유의도와 능력이 변경되면 가능하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계정재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3개 회계연도동안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분류제한규정(tainting rule)이 존재한다. 그러나 IFRS 9이 도입되면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보다 더 엄격한 조건 하에 가능해진다. 사업모형이 변경될 경우에만 금융자산 재분류가 허용

〈新회계기준(IFRS 9) 하 분류 및 측정〉



되며, 이는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 등 영업의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때 우 드문 상황에서 발생한다. 금융자산과 관련된 단순한 의도 변경이나 기업 내 서로 다른 부문간 자산 이전 등과 같은 경우는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각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IFRS 9 하의 AC 자산은 신용 악화 등 상황에서는 매각이 가능하므로 현행 대비 AC 자산의 매각 유연성은 증가한다.

2. 손상 인식기준

IFRS 9에서 충당금 설정방식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된다. IAS 39에서는 원리금 상환 불이행, 차입자의 파산 등 금융자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을 채택한다. 그러나 IFRS 9에서는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을 채택하여,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함으로써 손실 인식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의 미래전망 정보와 가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손상인식기준 차이〉

구 분	현 행	IFRS 9
손상 모형	• 발생손실(incurred loss)	• 예상손실(expected loss)
손상대상 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지분증권) • 원가 측정 지분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중 채무상품
손상 분류	• 2단계(정상, 손상)	• 3단계(정상(stage 1), 중대한 신용위험(stage 2), 손상(stage 3))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을 기존 2단계(정상, 손상)에서 3단계(Stage 1, 2, 3)로 세분화하였으며 정상 자산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의 예상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정상자산이지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자보상배율, 현금흐름, 손익 등에 문제가 발생한 자산을 Stage 2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현행 대비 커진다.

〈충당금 측정방법〉

구 분		충당금 측정 방법
Stage 1	보고일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향후 1년간 예상손실
Stage 2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한 자산	
Stage 3	손상이 발생한 자산	

3.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란 현금흐름과 손익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hedged item)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위험회피수단(hedging instrument)으로 상쇄하는 회계처리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을 동일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하여 손익변동성을 완화시킨다.

기존에는 외화위험회피가 목적인 경우에 한해 비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가능하였다. 그러나 IFRS 9에서는 외화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평가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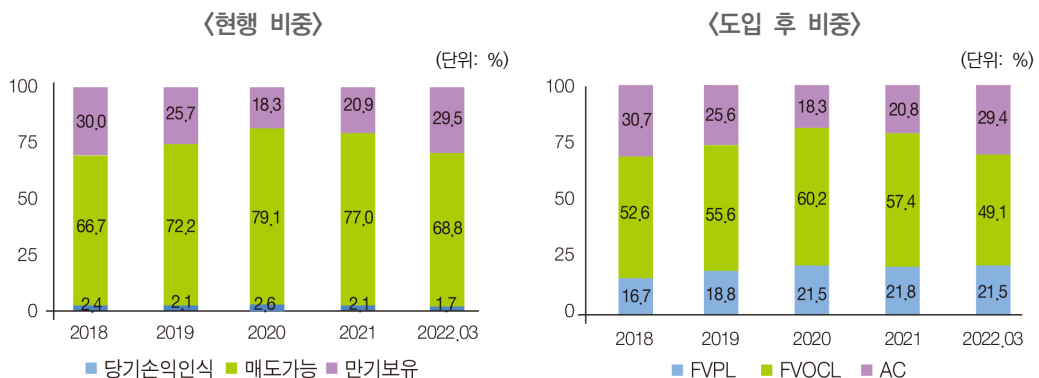
애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Ⅲ. IFRS 9 도입 영향

1. 금융자산 측정 및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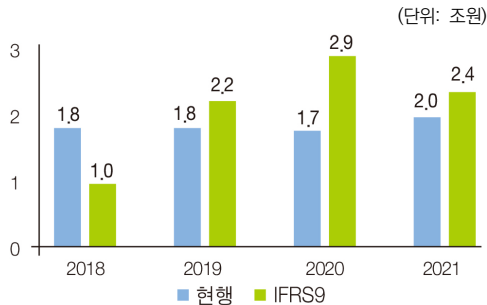
'22.3월말 생명보험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총 562.7조원으로, 이 중 387.3조원(68.8%)은 매도가능금융자산, 165.7조원(29.5%)은 만기보유금융자산, 9.7조원(1.7%)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IFRS 9에서는 SPPI(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모두 FVPL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모두 FVPL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한다. 즉,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신종유가증권 및 기타증권을 모두 FVPL 자산으로 재분류한다. 그 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지분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선택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FVOCI 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FVPL 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결과 FVPL 자산의 비중은 21.5%로 현행 기준 대비 19.8%p 상승한다.



FVPL 자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FVPL 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당기순이익 추정〉



〈당기순이익 변동성〉

	평균 (4개년도)	표준편차
현행(A)	1.82조원	0.08
IFRS 9(B)	2.10조원	0.7
차이(B-A)	0.28조원	0.62

2. 손상 인식

'22.3월말 생명보험업권의 총자산(연결 기준) 841.2조원 중 신용등급 BBB 이상 투자등급 자산은 574.9조원으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나, BB 이하 투기등급 자산(무등급 포함)도 84.4조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지만, IFRS 9에서는 단계에 따라 정상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12개월 또는 전체 기대손실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저신용등급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현행 발생손실모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 자산 신용등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운용금액							
	무위험	AAA	AA+~ AA-	A+~ BBB-	BB+ 이하	무등급	기타*	계
총 자 산 (비 중)	351.0 (41.7)	121.3 (14.4)	82.8 (9.8)	19.8 (2.4)	1.3 (0.2)	83.1 (9.9)	181.9 (21.6)	841.2 (100.0)
운용자산	348.1	119.9	81.0	19.7	1.3	82.6	176.4	829.1
현금및예치금	1.0	8.7	2.4	0.2	0.0	0.8	0.0	13.2
당기손익	0.0	0.0	0.4	0.1	0.0	0.0	0.5	1.0
매도가능	186.1	76.7	59.3	15.2	1.1	25.1	71.2	434.7
만기보유	138.5	25.1	10.7	2.1	0.0	0.1	0.1	176.5
관계·종속기업	-	-	-	0.1	0.1	-	0.9	1.1
대출채권	22.5	9.3	8.3	2.1	0.1	56.6	89.0	187.8
부동산	-	-	-	-	-	-	14.7	14.7
비운용자산	2.9	1.4	1.8	0.1	0.0	0.5	5.5	12.1

* 주식 및 출자금, 주택담보대출, 특수금융채권 등 RBC 상 위험계수가 별도로 정해진 자산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등급 자산을 제외하고 분석

Stage2 자산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한 자산으로 정의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Stage 2 자산을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에서 투기등급(BB 이하)으로 하락한 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가정한다. 한국신용평가에서 공시하는 1년 신용등급변동표에 따르면, 연초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자산이 연말 신용등급 BB 이하로 하락할 확률은 6.3%이다. 이를 활용하여 생명보험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대출채권 중 6.3%가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였다고 가정하며, 투기등급의 부도율은 25%,⁵⁾ 부도 시 미회수율은 80%⁶⁾로 가정한다.

〈1년 신용등급변동표〉

(단위: %)

구분		연말등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초 등급	AAA	96.82	0.22	.	.	.	.	.	2.96
	AA	0.54	89.59	2.09	0.11	.	.	.	7.67
	A	.	4.64	81.70	3.04	0.10	0.29	0.05	10.19
	BBB	.	.	6.75	70.46	3.63	1.86	0.34	16.96
	BB	.	.	0.15	3.81	57.62	7.33	4.55	26.54
	B이하	.	.	.	0.21	3.35	58.07	7.97	30.40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상환, 파산수합병 등으로 등급이 소멸된 경우

※ 출처: 한국신용평가, 대상기간: 1998~2019

'21.3월말 신용등급이 A+~BBB-인 채권은 19.2조원으로, 이 중 6.3%인 1.2조원의 채권이 1년 후인 '22.3월말 현재 BB 이하 투기등급 자산으로 하락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부도율과 미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충당금은 2,407억원이다. 생명보험업권의 대손준비금은 총 1.3조원으로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 추가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경우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준비금 적립 규모 이하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이 큰 일부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 필요액이 대손준비금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비용(대손상각비) 추가 발생 및 건전성 악화 부담이 존재한다.

5) K-ICS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예시 중 미회수율 차용

〈참고〉 IFRS 9 공시회사 분석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18년부터 IFRS 9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공시 재무제표와 IAS 39를 적용하고 있는 감독회계기준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IFRS 9의 실제 영향을 분석하였다.

IFRS 9 적용으로 FVPL 자산 비중이 2.4%에서 14.7%로 크게 증가한 반면, FVOCI 자산과 AC 자산의 비중은 회사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개별사별로 보면 A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권 일부를 AC 자산으로 분류하여 FVOCI 자산의 비중을 축소한 반면, B사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채권 일부를 FVPL 자산으로 전환하여 AC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였다.

IFRS 9 적용으로 기존에는 설정하지 않던 채권의 손실충당금 설정 등으로 대손충당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금액이 대손준비금 범위 내에 있어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기준 변화〉

(단위: 억원, %)

구 분	IAS39 (감독회계)		IFRS9 (재무회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FVPL	19,464	2.4	119,586	14.7
FVOCI	284,702	34.9	195,378	24.0
AC(유가증권)	369,293	45.3	349,979	42.9
AC(대출채권)	141,217	17.3	150,059	18.4
합 계	814,676	100.0	815,002	100.0

〈충당금 변화〉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IFRS 9 下 총당금(A)	FVOCI 채무증권	9,322
	AC 채무증권	9,791
	AC 대출채권	69,164
	소계	88,277
감독회계 下 총당금(B)		26,856
차이(A-B)		61,421
대손준비금		103,744

3. 위험회피회계

'22.3월말 생명보험업권의 파생금융상품은 계약금액 기준 182.2조원이며 이 중 69.5%가 통화 관련 헤지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화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권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환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통화스왑(CRS), 외환스왑(FX Swap) 등 파생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다.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이나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된 상품의 금리 하락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자율 헤지 상품을 취급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가지수선물 연동으로 주가 하락위험을 방어할 목적으로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며, 비중은 각각 27.5%, 2.6% 수준이다.

〈생보사 파생금융상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귀금속 등 상품 관련	총계
총 계약금액 (비 중)	50.1 (27.5)	126.6 (69.5)	4.7 (2.6)	0.8 (0.4)	182.2 (100.0)
헷지거래	27.1	112.5	1.4	0.0	141.0
트레이딩거래	23.0	14.2	3.3	0.8	41.2

현 회계제도에서는 외화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며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통해 위험회피 효과가 높을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위험에 대한 헤지 목적의 상품이거나 위험회피 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익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나 IFRS 9 도입 시 파생상품의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회사의 위험회피 회계를 활용한 자산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회사는 환헤지와 더불어 주식 및 금리, 기타 상품 관련 파생상품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 및 금리 등에 대한 헤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변액보험에 대한 손익변동성 확대를 방지하는 등 그간 위험회피 회계 적용이 어려웠던 위험관리 전략의 활성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전환일 계정재분류 회계처리

IFRS 9의 최초적용일('23.1.1)에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시점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측정했던 것처럼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IAS 39에서 인식했던 자산 장부금액과 IFRS 9를 적용했을 때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조정하게 된다. 회사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했느냐에 따라 전환일의 자산 및 자본의 변동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22년말 상각후원가는 933억원, 공정가치는 842억원인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자.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를 하회하므로 평가손실이 91억만큼 발생한다. 기존 회계기준에서 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IFRS 9에서 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자산 장부금액은 933억원에서 842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감소분만큼 이익잉여금(FVPL로 분류한 경우) 혹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로 분류한 경우)이 감소한다.

반대로 기존에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IFRS 9에서 AC 자산으로 재분류를 결정한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은 증가한다. 또한 기존에 인식했던 평가손실을 미인식하게 되어 이익잉여금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증가하게 된다.

〈전환일 계정재분류 회계처리에 따른 순자산 변동 방향〉

IAS 39	IFRS 9	변화
만기보유	FVPL	자산↓ 이익잉여금↓
	FVOCI	자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	AC	자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FVPL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인식	AC	자산↑ 이익잉여금↑
	FVOCI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IV. 결론 및 시사점

IFRS 9은 현행 회계기준 대비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지분증권 등이 FVPL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에 따라 FVPL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당기손익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상인식 방법의 변경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미래전망 등이 악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급증하여 자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FVPL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급여력제도에서는 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므로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수익증권을 통한 투자 대신 개별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식 보유 비중이 큰 보험사의 경우, 주식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을 행사하여 FVOCI 자산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FVPL 자산 비중 축소와 함께 채권에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듀레이션 갭 관리 등을 위해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 축소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영역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IFRS 9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는 크지 않고 대손준비금 한도 내로 설정되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손

상을 인식하므로 향후 미래 전망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급증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신용리스크 증가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3년 보험업권은 IFRS 9과 IFRS 17,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상품 판매전략,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등 쏠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산운용 측면에서 손익변동성 축소,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및 지급여력비율 관리 등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산운용 전략은 상이하게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전략과 이로 인한 리스크 변동, 경기침체 우려 확산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액 증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2015
- [2] 한국회계기준원,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안 영향분석보고서', 2015
- [3]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공인회계사 2017년 4월호(통권 287호) 41~47p, 2017
-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2015
-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 2018
- [6] 보험연구원,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2018
- [7]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 [8]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